

# 농|업|관|측|정|보

사과, 배 당도 및  
맛이 작년보다  
떨어져 수요부진  
및 가격하락 예상



11월 이후 사과, 배 공급량이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고 당도 등 맛도 떨어져 수요가 활발하지 않을 전망. 사과 가격은 평년보다 높지만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배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평년 수준에서 형성될 듯.

## ◎ 사과 수요 부진으로 가격 전년보다 낮아질 듯

내년 1월 사과 공급량은 금년 대비 6% 많고 품질도 좋지 않아 수요가 부진할 전망. 따라서 품질이 좋아 가격이 높았던 2004년산(5만 2천원)보다 가격이 낮아질 듯. 내년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440ha) 늘어난 2만 7,350ha일 것으로 전망.

## ◎ 배 수요 부진으로 가격 전년보다 낮아질 들큰

내년 1월 배 공급량은 금년 대비 1% 많고 당도는 저하되어 수요가 부진할 전망. 따라서 품질이 좋아 가격이 높았던 2004년산(3만 1천원)보다 가격이 낮아질 듯. 내년 배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2만 1,720ha일 것으로 전망.

## ◎ 11~12월 감귤 가격은 작년 수준 전망

11~12월 감귤 공급량은 2~7% 감소하지만 사과, 배 등

과일가격이 낮고 수요도 활발하지 않은 편이어서 가격은 작년 수준(상품 10kg 1만 1천원~1만 3천원)이 될 전망. 내년 감귤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2만 1,400ha 수준이 될 전망.

## ◎ 단감 수요 부진으로 11~12월 가격 작년보다 낮을 듯

11~12월 단감 공급량은 지난해 수준이지만 품질이 작년 보다 못하고 수요도 활발하지 않아 작년보다 낮은 2만 7천 원~2만 9천원 수준이 될 전망. 내년 단감 재배면적은 금년 보다 1%(86ha) 감소한 1만 7,110ha 수준이 될 전망.

## ◎ 내년 포도 재배면적 금년보다 1% 감소 전망

내년 포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290ha) 감소한 2만 1,770ha 수준 전망. 노지면적은 금년보다 2% 감소하는 반면, 하우스면적은 2% 증가할 전망. 내년 가온 하우스포도의 가온시기는 앞당겨져서 11~1월 면적은 35ha 증가하는

반면, 2월은 35㏊ 감소할 듯.

### ◎ 내년 복숭아 면적 금년보다 5% 감소 전망

내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5%(730㏊) 감소한 1만 4,290㏊일 전망. 중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의 면적 감소세가 더 클 듯. 내년 유모계 면적은 금년보다 4%, 천도계는 9% 감소하며, 조생종 면적은 금년보다 7%, 중생종은 5%, 만생종은 4% 감소 전망.

## 사과

### ■ 11월 상순 사과 가격 작년보다 4% 낮아

○ 후지(상품 15kg) 가격은 10월 상순 2만 2천원으로 시작하여 중순에는 4만 1천원으로 상승하였고 이후 반입량이 늘면서 10월 하순에는 3만 5천원으로 하락하였다. 10월 평균 가격(상품 15kg)은 3만 2천원(중품 2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19% 낮지만 평년보다는 11%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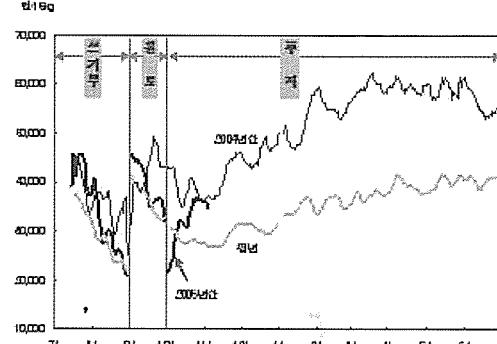
○ 11월 상순 후지(상품 15kg) 가격은 3만 5천원(중품 2만 5천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4% 낮지만 평년보다는 3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것은 수확기 잣은 강우로 흐린 날이 많아 당도와 색택 등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사과 품질 작년보다 다소 낮아져

○ 후지 사과의 품질을 살펴보면, 크기("좋음" 60%, "비슷함" 29%, "나쁨" 11%)는 과실 비대기에 적절한 강우로 인해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색택("좋음" 34%, "비슷함" 30%, "나쁨" 36%)은 수확기에 흐린 날이 많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과(후지)의 당도는 작년( $14.4^{\circ}\text{Bx}$ )보다  $0.3^{\circ}\text{Bx}$  감소한  $14.1^{\circ}\text{Bx}$ 로 조사되었으며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흥로, 10월부터는 후지 기준. 평년은 '00. 7~'05. 6월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 내년 1월 사과 가격 금년보다 하락할 전망

○ 금년 사과 작황은 일부 지역의 개화기 저온 및 고온으로 인한 착과불량과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로 작황이 다소 부진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작년보다 좋아 성목단수는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목면적이 3% 줄어들어 금년 사과 생산량은 작년보다 1% 감소한 36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은 개화기가 늦어진데다 수확기 전에 잣은 강우로 인한 일조 부족으로 색택을 내기 위해 수확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11월 공급량은 작년보다 4% 증가한 3만 6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후지(상품 15kg) 가격은 11월 공급량이 늘어 작년(4만 1천원)보다 낮지만 평년(2만 8천원)보다 높은 3만 5천원~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설날(1월 29일) 대목을 겨냥한 저장 물량이 출하되면서 1월 공급량은 금년보다 6% 늘어난 5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 저하로 수요가 부진하여 1월 후지(상품 15kg) 가격은 품질이 좋아 가격이 높았던 2004년산(5만 2천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 사과 공급량 추정

단위: 천톤, %

연산	생산량	월별 공급량(A-B)						
		공급량 (A)	수출량 (B)	7~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후
'04	357	345	3.0	155	35	31.0	47	74
'05	355	343	3.2	146	36	30.6	50	77
증감률	-0.5	-0.6	3.9	-5.9	3.7	-1.3	6.4	4.2

주: 공급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것임. 시기별 공급량 및 '05년산 생산량은 11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 ■ 내년 사과 재배면적 금년보다 2% 늘어날 전망

- 금년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231ha) 증가한 2만 6,907ha, 성목면적은 3%(510ha) 감소한 1만 6,37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440ha) 늘어난 2만 7,350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충청과 경북 지역이 각각 1%, 경남 지역이 6%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 배

#### ■ 11월 상순 배 가격 작년보다 27% 낮아

- 10월 상순 2만 6천원까지 올라갔던 신고(상품 15kg) 가격은 이후 하락하여 하순에는 2만원으로 떨어졌다. 10월

평균 가격(상품 15kg)은 2만 2천원(중품 1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1%, 평년보다는 3% 낮았다. 이는 10월 반입량이 작년에 비해 많았고 품질도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1월 상순 신고(상품 15kg) 가격은 2만 1천원(중품 1만 4천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7%, 평년보다는 8%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낮은 것은 작년보다 당도가 낮아 수요가 부진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내년 1월 배 가격 금년보다 하락할 전망

- 금년 배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개화기 저온 및 서리 피해로 착과가 불량했고 태풍 '나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성목단수는 작년보다 1%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목면적이 2% 줄어들어 금년 배 생산량은 작년보다 3% 감소한 44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배 공급량은 작년보다 5% 감소한 3만 3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신고(상품 15kg) 가격은 11월 공급량이 줄어들지만 당도 저하와 수요 부진으로 작년(2만 9천원) 및 평년(2만 4천원)보다 낮은 2만원~2만 2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배 공급량 추정

단위: 천톤, %

연산	생산량	월별 공급량(A-B)						
		공급량 (A)	수출량 (B)	9~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후
'04	452	1. 426	2. 20	3. 14 9	4. 35	5. 34	6. 7 7	7. 111
'05	439	8. 411	9. 21	10. 1 47	11. 3 3	12. 3 3	13. 7 8	14. 99
증감률	-2.8	15. -3. 6	16. 5.4	17. - 1.2	18. - 5.3	19. - 4.3	20. 1 0.4	21. -1 0.9

주: 공급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것임. 시기별 공급량 및 '05년산 생산량은 11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 감귤

○ 내년 설날(1월 29일) 대목을 겨냥해 저장한 물량이 출하되면서 1월 공급량은 금년보다 1% 늘어난 7만 8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도 저하로 수요가 부진하여 1월 신고(상품 15kg) 가격은 품질이 좋아 가격이 높았던 2004년산(3만 1천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에 수확되어 저장된 배는 과실 크기가 커서 저장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산 배 공급량은 1월 이전에 주로 출하될 것으로 보여 2월 이후 공급량은 금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 내년 배 재배면적 금년과 비슷할 전망

○ 금년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1,175ha) 감소한 2만 1,807ha, 성목면적은 2%(284ha) 감소한 1만 7,101ha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배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2만 1,720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과 영남 지역이 각각 1% 감소하고,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 품종별로는 장십량 4%, 황금배 3%, 원황과 기타 품종이 1% 감소하지만, 신고 면적이 늘어 전체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년까지 면적이 늘어나던 원황과 기타 품종의 재배면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저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신고 품종으로 간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11월 상순 감귤가격은 평년 수준

○ 10월 노지온주감귤 도매가격(상품 10kg)은 2만 2,600원(중품 1만 7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 평년보다 12% 낮았다. 11월 상순 가격은 1만 4,200원(중품 1만 4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평년보다 1% 높았다. 10월 감귤 공급량이 작년보다 6% 감소했지만 가격이 낮았던 것은 대체 과일인 배, 떫은감 등의 공급량이 작년보다 증가했고, 극조생감귤의 산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 ■ 노지온주감귤 생산량 50만톤 전망

○ 노지온주감귤의 평균횡경이 작년보다 1.3mm, 평년보다 0.9mm 늘어난 61.6mm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a당 착과수는 작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목단수는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년보다 13~14% 감소하지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3%, 성목단수도 2% 감소하여 금년 생산량은 작년보다 5% 감소한 5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노지온주감귤 당산비 작년보다 낮아

○ 노지온주감귤의 개화시기가 늦어 생육일수가 적었지만 9~10월 강수량이 적어 당도는 작년과 비슷한 9.8°Bx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산도 감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당산비는 작년보다 0.5 낮은 9.6으로 나타났다. 외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감귤 도매가격(상품)

단위: 원/10kg

년도	10월	11월	12월
'05	22,577		
'04	23,596	11,481	12,824
'03	30,574	13,220	12,009
평년	25,826	10,567	12,417

주: 평년은 '00~'04년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 11~12월 감귤 공급량은 5~9% 감소하나 가격은 작년 수준 일 듯

○ 10월 노지온주감귤 공급량은 작년 동기보다 6% 감소하였다. 시기별 출하의향 조사결과 11~12월 공급량은 2~7% 감소하지만 1월 이후에는 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이후 공급의향률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고 사과, 단감 등의 저장률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하시기를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 11~12월 감귤 공급량이 작년 동기보다 2~7% 감소하지만 사과, 배 등의 수요가 활발하지 않고 가격도 작년보다 낮아, 감귤가격도 평년보다는 높지만 작년수준(상품 10kg 1만 1천원~1만 3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월동온주와 한라봉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금년산 월동온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0%(86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산 1월 이후 감귤가격이 좋아 금년에는 노지에서 월동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크기 때문이다. 단수는 작년보다 3% 감소하여 생산량은 16%(1,800톤) 증가한 1만 3천톤 일 것으로 전망된다.

○ 한라봉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증가한 1,182ha 수

준으로 추정된다. 단수는 성목면적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20%(2,600톤) 증가한 1만 6천톤 일 것으로 전망된다.

## ■ 내년 감귤 재배면적 금년과 비슷할 듯

○ 금년 감귤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603ha) 감소한 2만 1,504ha이었다. 이중 노지는 작년보다 3%(647ha) 감소한 1만 9,145ha이지만, 시설감귤은 2%(44ha) 증가한 2,35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감귤 재배면적은 금년과 비슷한 2만 1,400ha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노지온주는 1%, 하우스온주는 6% 감소하지만, 월동온주는 8%, 한라봉 및 만감류는 2~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온주는 우량품종으로의 간신이 이루어지고, 가온하우스온주감귤의 일부가 월동온주와 만감류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 내년 가온하우스온주감귤 면적은 유류비인상 등의 이유로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온시기별로는 극조기 15%, 보통과 후기는 5% 감소하지만, 조기가온은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 노지온주감귤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4	19,214	2,740	527
'05	18,642	2,685	501
증감률(%)	-3.0	-2.0	-4.9

주: 생산량은 11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노지온주감귤 공급량 전망

단위: 천톤, %

		생산량	공급량				
계	10월		11월	12월	1월 이후		
공급량 (천톤)	'04년산	527	374	36	100	111	127
	'05년산	501	374	34	93	109	138
증감률(%)		-4.9	-0.1	-5.6	-7.2	-1.5	8.2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1~31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 ■ 한라봉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04년산	1,101	1,214	13.4
'05년산	1,182	1,353	16.0
22. 증감률(%)	7.4	11.5	19.7

주: '05년산은 농업관측정보센터 모니터 및 농가 조사에 의한 추정치임.

자료: 감귤출하연합회, 「감귤유통처리분석」.

## ■ 감귤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증감률

단위: %

	온주			만감류		전체
	노지	하우스	월동	한라봉	기타	
23. 증감률	-0.6	-5.9	8.0	2.7	2.2	-0.3
24. ('06/'0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1~31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추정치.

## 단 랩

## ■ 11월 상순 단감가격 작년보다 20% 낮아

○ 10월 단감 도매가격(부유 상품 15kg)은 2만 8,600원(중품 2만 8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 평년보다 25% 높았다. 11월 상순가격은 2만 4,800원(중품 1만 6,600원)으

로 작년 동기보다 20% 낮지만 평년보다는 37% 높다.

작년보다 낮은 것은 단감공급량과 사과 등 대체과일 공급량이 늘었으며, 당도, 외관 등 품질이 좋은 것은 대부분 저장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 위주로 출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단감 도매가격(상품)

단위: 원/15kg

연 산	'05	'04	'03	평 년
연평균		34,539	30,578	24,780
9월	33,625	28,526	33,313	32,251
10월	28,587	27,042	25,575	22,910
11월		33,615	29,820	22,940
12월		34,426	32,648	26,754
1월		43,200	33,543	27,774
2월		51,786	38,146	29,890
3월		57,704	42,796	33,548
4월		59,133	36,917	31,032
5월		-	-	25,000

주: 9월은 서촌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00.9~'05.4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 단감 생산량 19만톤 전망

○ 단감 성목단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착과수가 많았고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수확기에 탄저병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11% 증가하지만, 경북과 전남지역은 태풍 '나비' 피해와 해결이, 생리 낙과 등으로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단감 성목단수가 5%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이 6% 감소하여 금년 생산량은 작년보다 1% 감소한 19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생산량은 경남이 6% 증가하지만, 경북은 4%, 전남은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 단감 당도 작년보다 낮아

○ 단감(부유)의 당도는 생육 후반기의 일조량부족으로 작년보다  $0.6^{\circ}\text{Bx}$  낮은  $14.6^{\circ}\text{Bx}$ 로 조사되었다. 과중은 작년보다 4g 증가한 209g으로 조사되었다. 외관은 병해충피해가 많지 않아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단감 공급량 12월 6% 증가, 가격도 작년보다 낮을 듯

○ 10월까지 단감 공급량은 작년보다 3% 감소했고 11월에도 2% 감소하지만, 12월 6%, 1월 이후에는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이후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작년이 시기 가격이 높았고 수확기에 탄저병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금년산의 저장성이 높아 저장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공급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절한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하겠다.

### ■ 단감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4년산	15,661	1,247	195
'05년산	14,747	1,311	193
증감률(%)	-5.8	5.1	-1.1

주: 생산량은 11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단감 지역별 생산량 전망

	경남	경북	전남	전체
생산량 (천톤)	'04년산	101	25	64
	'05년산	107	24	58
증감률(%)	5.8	-4.2	-9.9	-1.1

주: 시지역은 인근도에 포함됨. '05년 전체 및 지역별 생산량은 11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단감 공급량 전망

	생산량	공급량				
		계	10월 까지	11월	12월	1월 이후
공급량 (천톤)	'04년산	195	156	57	38	26
	'05년산	193	158	55	37	28
증감률(%)		-1.1	1.6	-3.0	-2.3	6.0
						11.9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1~31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 ■ 내년 단감 재배면적 1% 감소 전망

○ 금년 단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1,334ha) 감소한 1만 7,199ha, 성목면적은 6%(914ha) 감소한 1만 4,747ha이었다.

○ 내년 단감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86ha) 감소한 1만 7,11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과수원 정비사업과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폐원 등으로 나타났다.

○ 품종별로 차랑과 서촌조생은 1~2% 감소하지만, 부유는 작년 수준, 상서와 기타품종은 1~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남은 작년 수준이지만 전남은 1%, 경북은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복숭아

### ■ 내년 복숭아 재배면적 금년보다 5% 감소 전망

○ 금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한 1만 5,014ha, 성목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9,830ha이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복숭아의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내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5%(730ha) 감소한 1만 4,290ha일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 경기·강원은 금년보다 1%, 영남은 6%, 호남은 7%, 충청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만생종 주산단지인 중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의 감소세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모계는 금년보다 4%, 천도계는 9% 감소 전망

- 내년 유모계 복숭아 면적은 금년보다 4%, 유모계에 비해 가격이 낮은 천도계는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조생종 복숭아 면적은 금년보다 7%, 중생종은 5%, 만생종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기와 장마기가 겹치며 당도가 다소 떨어지는 조생종의 면적 감소율이 중만생종의 면적 감소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생종 중 가격이 안정적인 장호원황도, 천중도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소폭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 복숭아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경남	경북	전남	전체	
생산량 (천톤)	'04년산	101	25	64	195
	'05년산	107	24	58	193
증감률(%)	5.8	-4.2	-9.9	-1.1	

주: '05년과 '06년 품종별 면적 및 '06년 전체면적은 11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전체면적).

#### ■ 복숭아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면적 (ha)	'05년산	2,175	7,052	1,392	4,378	15,014
	'06년산	2,157	6,608	1,291	4,213	14,287
증감률(%)	-0.8	-6.3	-7.2	-3.8	-4.8	

주: '06년 면적은 11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조사·추정치임. 시자역은 인근도에 포함되었으며, 전체면적은 제주지역 면적이 포함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년 면적).

11~12월 오이 ·  
애호박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승 전망



11~12월 오이 · 애호박 출하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오이의 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 11~12월 토마토 출하량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 11~12월 딸기 출하량도 작년보다 9% 내외 증가할 듯.

#### ◎ 11~12월 오이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높을 전망

11~12월 오이 출하면적이 유가상승과 토마토와의 생산 대체로 작년보다 각각 9%, 7% 줄 듯. 11~12월 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줄고, 단수도 조금 낮아 작년보다 10% 정도 감소할 전망. 11~12월 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크게 높고, 평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

#### ◎ 11~12월 호박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

11~12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타작목과의 생산 대체로 작년보다 각각 12%, 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단수는 조금 낮을 전망. 11~12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의 감소로 작년보다 각각 13%, 5% 적을 듯. 11~12월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높을 전망. 11~12월 쥬키니 출하량은 출하면적의 증가로 조금 늘겠으나, 애호박과의 소비 대체로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

#### ◎ 11~12월 딸기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딸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적은 7,100ha 수준이 될 듯. 재배면적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산지인 영남, 충청 등지에서 정식을 앞당긴 농가들이 많고, 수확량이 많은 촉성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1~12월 딸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각각 10%, 7% 증가할 전망.

#### ◎ 11~12월 토마토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11~12월 일반토마토 출하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작년보다 26% 내외 많을 전망. 11월 토마토 가격은 작년 가격이 크게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높겠고, 12월 가격은 낮을 전망. 11~12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듯.

11~12월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각각 19%, 16% 많을 전망. 11~12월 방울토마토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듯. 11~12월 정식면적은 조기출하를 위해 정식을 앞당긴 농가들이 많아 작년보다 각각 3%, 8% 감소할 전망.

#### ◎ 내년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감소할 전망

11월 수박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18% 적어 크게 높을 전망. 12월 수박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아 소폭 하락할 듯. 내년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1% 감소할 전망. 촉성수박 정식시기는 앞당겨질 듯.

#### ◎ 내년산 참외 정식시기는 금년산보다 앞당겨질 전망

촉성작형인 11~12월의 정식면적은 금년 조기출하된 참외의 가격이 좋아 작년보다 4~5% 증가할 전망. 내년 참외 정식면적은 전북지방과 경기지방 일부농가가 토마토, 오이, 호박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여 금년보다 5~10% 감소할 듯.

## 오이

## ■ 11월 상순 오이 가격은 작년보다 75% 높은 수준

○ 10월 오이 도매가격은 백다다기 상품 100개당 2만 9,600원(중품 2만 2,900원)으로 작년보다 87%, 평년보다 50% 높았다.

○ 10월 오이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8~9월 오이 억제재배 정식면적의 감소로 출하면적이 줄어든 데다 주산지인 충남 공주·부여·천안 등지의 억제작형 백다다기 오이가 9~10월에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일조시간도 부족(10월 대전기준 강수량 510% 증가, 일조시간 작년대비 16% 감소)하여 출하량이 작년보다 27% 감소하였다 때문이다.

○ 10월 상순 주산지의 일조시간 부족으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작년대비 40% 감소)하였고, 중순에는 기상여건이 회복되면서 10월 중·하순 출하량 감소 폭이 둔화되었다 (작년대비 19% 감소). 10월 출하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오이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은 작년 오이 가격이 상당히 낮았기(2003년대비 37% 하락, 평년대비 20% 하락) 때문이다.

○ 11월 상순 백다다기 오이 가격은 상품 100개당 3만 1,800원으로 작년보다 75%, 평년보다 48% 높은 수준이다.

## ■ 오이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2005년		2006년
	11월	12월	1월
출하예정면적 <sup>1)</sup>	-9.1	-6.6	-7.8
단 수 <sup>2)</sup>	-4.7	0.5	-
출하예상량	-13.4	-6.2	-

1)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표본농가 조사치.

2)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모니터 조사치.

## ■ 11~12월 오이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8% 줄 듯

○ 11월 오이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9%, 12월은 7%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억제작형 백다다기 오이를 재배하던 충남 공주·부여·천안, 대전광역시 등지의 일부 농가가 작년 출하하기 오이 가격이 낮았던 데다 최근 2~3년간 가격이 높고, 오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또한, 전남 보성·강진의 취청 오이를 재배하던 일부 농가가 유가상승에 의한 난방비 부담(10월 면세유 기준 작년대비 21% 상승)으로 정식면적을 줄이거나, 상대적 저온 작물인 토마토, 애호박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다.

○ 내년 1월 오이 출하면적은 금년 1월보다 8%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전남 순천·구례의 촉성작형 취청오이 농가들이 고령화로 정식면적을 줄였기 때문이다.

## ■ 11월 오이 단수는 작년보다 조금 낮고, 12월은 비슷할 듯

○ 11월에 출하될 오이 단수는 작년보다 5% 정도 낮고, 12월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단수가 낮은 것은 충남 공주·부여, 대전광역시 등지의 억제작형 백다다기 오이와 전남 순천·강진 등지의 취청오이가 10월에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도 부족하여(대전기준, 10월 작년대비 강수량 510% 증가, 일조시간 16% 감소) 곡과, 기형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더욱이 금년 11월에는 작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온성 작물인 오이의 과 비대 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 11월 오이 출하량은 작년보다 13%, 12월은 6% 적을 전망

○ 11월 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단수도 낮아 작년보다 13%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에 비해서도 조금 적은 양이다.

○ 12월 오이 출하량은 단수가 작년과 비슷하나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6%, 평년보다 3%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 11~12월 오이 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높고, 평년 보다 조금 높을 전망

○ 11월 오이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대체제자인 애호박의 출하량도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이 도매가격은 작년(백다다기 상품 100개당 2만원)보다 크게 높고, 평년(백다다기 상품 100개당 2만 5,700원)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오이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이 도매가격은 작년(백다다기 상품 100개당 2만 2,700원)보다 높고, 평년(백다다기 상품 100개당 3만 100원)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호박(애호박)

#### ■ 11월 상순 애호박 가격은 작년보다 36% 높은 수준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상품 20개당 1만 4,500원(중품 1만 1,600원)으로 작년보다 76%, 평년보다 40% 높았다.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이 작년과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호박 주산지인 충남 부여, 충북 청원 등지에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대전 기준 작년대비 강수량 510% 증가, 일조시간 16% 감소) 출하량이 작년보다 14%(평년보다 1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11월 상순 애호박 가격은 1만 3,900원으로 작년보다 36%, 평년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 ■ 11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12%, 12월은 4% 줄 전망

○ 11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12%, 12월은 4% 줄 것으로 전망된다.

○ 11~12월 애호박 출하면적이 감소한 것은 작년 출하기 애호박 가격이 평년보다 12~20% 낮아 충남 부여, 전남 나주, 광주광역시의 애호박 억제작형 일부농가가 토마토, 메론, 풋고추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 애호박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2005년		2006년
	11월	12월	1월
출하예정면적 <sup>1)</sup>	-11.6	-3.8	4.3
단 수 <sup>2)</sup>	-1.6	-1.2	-
출하예상량	-12.9	-5.0	-

1)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표본농가 조사치.

2)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모니터 조사치.

○ 내년 1월 애호박 촉성작형 출하면적은 금년 1월보다 4%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 그것은 경남 진주, 전남 광양에서 오이, 풋고추, 피망 등을 재배하던 일부 농가가 정식기에 유가가 높아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 저온 작물인 촉성작형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 11~12월 애호박 단수는 작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

- 11월 애호박 단수는 작년보다 2%, 12월은 1%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11~12월 애호박 단수가 낮은 것은 애호박 주산지인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에서 지난해 태풍 '메기'에 의한 침수피해의 영향으로 금년 애호박의 수정이 불량하여 단수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 11~12월 애호박 출하량은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

- 11~12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하고, 단수도 조금 낮아 11월은 작년보다 13%, 12월은 5%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 11~12월 애호박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

- 11~12월 애호박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작년(상품 20개당 11월 1만 3,500원, 12월 1만 5,1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호박(쥬키니)

#### ■ 11월 상순 쥬키니 가격은 작년보다 61% 높은 수준

- 10월 쥬키니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만 4,800 원(중품 1만 1,600원)으로 작년보다 175%, 평년보다 144% 높았다.

- 10월 쥬키니 출하량은 충남 논산·공주 등지에서 흐

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 일조시간의 부족으로(대전기준, 작년대비 강수량 510% 증가, 일조시간 16% 감소) 작년보다 19% 감소하여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 특히 10월 상·중순 쥬키니 출하량이 작년보다 31% 감소하여 쥬키니 도매가격은 228% 상승하였다. 쥬키니는 요식업소에서 고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쥬키니 단경기인 10월에 출하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되었다.

- 11월 상순 쥬키니 가격은 7,900원으로 작년보다 61%, 평년보다 55% 높은 수준이다.

#### ■ 11~12월 쥬키니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늘 전망

- 11월 쥬키니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6% 늘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출하면적이 늘어난 것은 억제작형 정식기인 금년 8월의 쥬키니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140%) 주산지인 충남 논산·공주 등지에서 정식면적을 늘린 농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 12월과 내년 1월 쥬키니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3%, 2%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쥬키니 촉성작형 정식기인 10월의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에 주산지인 경남 진주·의령의 10~11월 정식(의향)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 ■ 11~12월 쥬키니 출하량은 작년보다 조금 많을 전망

- 11월 쥬키니 단수는 작년보다 2%, 12월은 1%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1~12월 쥬키니 단수가 낮은 것은 쥬키니 주산지인 충남 논산·공주 등지에서 10월에 비 오는 날이 많아 생육상태가 나쁘고, 수정이 불량화될 것으로 추

정되기 때문이다.

- 11월 쥬키니 출하량은 단수가 조금 감소하나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4% 많고, 12월은 출하면적의 증가로 작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 11~12월 쥬키니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

- 11~12월 쥬키니 출하량이 작년보다 조금 많겠으나, 소비대체재인 애호박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쥬키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쥬키니 도매가격은 평년(상품 10kg 상자당 11월 6,900원, 12월 7,900원)과 작년(상품 10kg 상자당 11월 7,500원, 12월 8,300원)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 쥬키니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2005년		2006년
	11월	12월	1월
출하예정면적 <sup>1)</sup>	5.8	3.3	2.1
단 수 <sup>2)</sup>	-1.9	-1.2	-
출 하 예 상 량	3.8	2.1	-

1)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표본농가 조사치.

2)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모니터 조사치.

## 일반토마토

#### ■ 11월 상순 토마토 가격은 작년보다 16%, 평년보다 9% 높은 수준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만 8,300원(중품 1만 800원)으로 작년보다 17% 낮고, 평년보다 12% 낮은 수준이다.

- 10월 토마토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토마토 수

요는 증가 하였지만 최근 2~3년 동안 토마토 가격이 높아 강원,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토마토 재배면적이 늘어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작년대비 34% 증가).

- 11월 상순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만 8,900원(중품 9,800원)으로 작년보다 16%, 평년보다 9% 높은 수준이다.

#### ■ 11~12월 토마토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 할 듯

- 11~12월 일반토마토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26% 정도 증가하고, 내년 1월에는 1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일반토마토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2005년		2006년
	11월	12월	1월
출하예정면적 <sup>1)</sup>	26.9	25.3	13.8
단 수 <sup>2)</sup>	-0.3	-0.4	-
출 하 예 상 량	26.5	24.8	-

1)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표본농가 조사치.

2)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모니터 조사치.

- 이는 토마토 가격이 높아 충남 공주·부여·연기 등지에서는 오이에서 토마토로 작목 전환한 농가들이 많고, 전북 고창, 경기 평택, 전남 영암 등지에서도 토마토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11~12월 일반토마토 단수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의 기상이 좋지 않았으나 주산지인 충남, 전남 등지에서 토마토 생육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11~12월 토마토 출하량은 작년보다 26% 내외 증가할 전망

○ 11~12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단수는 비슷하나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26% 내외(평년대비 117~1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11월 토마토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높고, 12월은 낮을 듯

○ 11월 토마토 출하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 11월 가격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2003년 대비 44%, 평년대비 37% 하락) 상대적으로 11월 토마토 도매가격은 작년(상품 10kg 상자당 1만 2,800원)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욱이 토마토 품질도 작년과 평년보다 좋을 듯 하며, 대체과일인 단감, 감귤 등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11월 토마토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토마토 도매가격은 토마토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작년(상품 10kg 상자당 1만 4,800원)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 11~12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0%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토마토 가격이 다른 작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부산광역시, 경남 창녕, 전남 고흥·담양, 충남 부여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10월 정식면적이 지난달(11월호) 조사치보다 적은 것은 축성재배 주산지인 부산광역시, 경남 사천 등지의 일부

농가들이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정식을 늦추기 때문이다.

○ 11월 일반토마토 정식면적은 10월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과 작년 상반기 토마토 가격이 높아 경북 경주 등지에서 정식시기를 12월에서 11월로 앞당긴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일반토마토 정식면적은 11월로 정식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이나 유가상승으로 경남 사천 등지에서 10월에서 12월로 정식을 늦추는 농가가 많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울토마토

### ■ 11월 상순 방울토마토 가격은 작년보다 1%, 평년보다 19% 낮은 수준

○ 10월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당 1만 1,300원(중품 8,800원)으로 작년보다 13%, 평년보다 8% 낮았다.

○ 10월 방울토마토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27%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과일인 일반토마토 출하량도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 11월 상순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당 8,900원(중품 6,600원)으로 작년보다 1%, 평년보다 19% 낮은 수준이다.

### ■ 11~12월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22%, 18% 증가할 듯

○ 11~12월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22%,

1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지에서는 파프리카, 화훼, 가지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로 작목전환한 농가들이 많고, 광주광역시, 충남 부여·예산, 충북 충주, 전남 보성 등지에서도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방울토마토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2005년		2006년	단위: %
	11월	12월	1월	
출하예정면적 <sup>1)</sup>	21.9	18.4	3.0	
단 수 <sup>2)</sup>	-2.2	-2.1	-	
출 하 예 상 량	19.2	15.9	-	

1)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표본농가 조사치.

2)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모니터 조사치.

○ 금년 1월은 연장재배 농가들이 많아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내년 1월은 유가 상승으로 조기에 종료를 하려는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나타나 금년 1월보다 3%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산지인 전남, 충남 등지에서 억제재배 품종으로 지난해까지 대파인 꼬꼬치 대부분이었으나 올해 6~8월부터 중과인 레드요요, 산체리 등으로 품종을 변경하여 11~12월 방울토마토 단수는 작년보다 2%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 ■ 11~12월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작년보다 각각 19%, 16% 많을 전망

○ 11~12월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각각 19%, 16% 정도(평년대비 11월 35%, 12월 3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 11~12월 방울토마토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방울토마토 품질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좋을 것으로 보이나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고, 대체재인 일반토마토 출하량도 많을 것으로 보여 가격은 작년(상품 5kg 상자당 1만 900원)과 평년(상품 5kg 상자당 1만 100원)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체재인 일반토마토 출하량도 많을 것으로 보여 작년(상품 5kg 상자당 1만 4,500원)과 평년(상품 5kg 상자당 1만 2,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 11월 정식면적은 3%, 12월은 8% 감소할 듯

○ 10월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8%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년 상반기 방울토마토 가격이 높아 전남 담양·보성·고흥, 전북 익산, 충남 부여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11~12월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3%,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월로 정식을 앞당겨 조기출하 하려는 농가가 많고, 전남 나주, 충남 논산 등지의 일부 농가가 유류비 상승으로 정식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딸 기

#### ■ 딸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전망

○ 올해 11월부터 출하될 딸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적은 7,100ha 수준으로 추정된다.

○ 지역별 딸기 재배면적은 지난번 조사에서 호남지역이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과채월보 10월 호) 이번 조사에서는 호남 지역의 감소 폭이 확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 ■ 11~12월 딸기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5% 내외 증가할 듯

- 11~12월 딸기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5%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1~12월 출하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주산지인 영남, 충청 등지의 딸기 농가가 정식시기를 작년보다 앞당겼기 때문이다(과채월보 11월호).

- 내년 1월 딸기 출하면적도 정식시기가 빨라져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월은 반죽성 재배면적의 감소로 작년보다 1%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 ■ 11~12월 딸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 11~12월 딸기 단수는 작년보다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딸기 정식기에 고온의 영향으로 탄저병 발생이 많았으나 대부분 재정식이 되었으며, 수확량이 많은 죽성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11월 딸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10%, 12월은 7% 많겠으며, 이는 평년에 비해 각각 91%, 55% 많은 양이다.

### ■ 딸기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충청	호남	영남	전국
-2.8	-5.3	-1.0	-2.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수 박

### ■ 11월 상순 수박가격은 작년보다 16% 높은 수준

- 10월 수박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9,400원(중품 5,700원)으로 작년보다 16%, 평년보다 42% 높았다. 10월 수박 출하량이 작년보다 2%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사과, 포도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이 적어 수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11월 상순 수박 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1만 1,700원(중품 7,200원)으로 작년보다 82%, 평년보다 80% 높은 수준이다.

### ■ 11월 수박 출하량은 작년보다 적고, 12월은 많을 듯

- 11월 수박 출하면적은 전북지방에서 무, 배추 등으로 자목이 전환되어 작년보다 13% 정도 적고, 단수는 충남지방의 작황부진으로 작년보다 6%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의 감소로 작년보다 18%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수박 출하면적은 충남지방의 억제수박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1% 정도 많고, 단수는 경남지방의 작황이 좋아 작년보다 4%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2월 수박 출하량은 작년보다 5%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 ■ 수박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11월	12월
출하예정면적 <sup>1)</sup>	-12.7	0.7
단 수 <sup>2)</sup>	-6.3	3.9
출 하 예 상 량	-18.1	4.6

1)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표본농가 조사치.

2)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1일 모니터 조사치.

### ■ 11월 수박 가격은 작년보다 높고, 12월은 낮을 듯

- 10월 하순에 거래된 수박의 평균 포전거래가격은 하우스 200평 1동당 145만원으로 작년 138만원보다 5%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 수박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고, 대체과일의 출하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수박 도매가격은 작년(상품 10kg 상자당 6,200원)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수박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보여 작년(상품 10kg 상자당 1만 1,300원)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내년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감소할 전망

- 내년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년 후작수박의 가격이 기대보다 낮아 후작으로 수박을 정식하던 농가들이 메론, 참깨, 고추 등으로 품목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내년산 촉성수박 정식시기는 금년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부지방의 수박농가들이 중부지방 첫물 수박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해 정식을 앞당기려는 의향이 많기 때문이다.

## 참 외

### ■ 10월 참외가격은 작년보다 10% 높은 수준

- 10월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당 2만 800원(중품 1만 3,300원)으로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40% 높았다.
- 이는 금년 추석이 빨라 지난해보다 일찍 수확을 종료

하고, 토양관리에 들어 간 농가가 많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작년대비 63% 감소).

### ■ 내년산 참외 정식시기는 금년산보다 앞당겨질 듯

- 내년산 참외의 정식시기는 금년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촉성작형인 11~12월의 정식면적은 금년산보다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온에 강한 품종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금년 일찍 출하된 참외의 가격이 높아 주산지인 경북지방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 내년 1월 이후 참외 정식면적이 금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이 시기에 주로 정식하는 전북지방과 경기지방의 참외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토마토, 오이, 호박, 메론, 수박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